박민지 시간 돌아왔다…KLPGA 최초 대회 5연패 도전

6일 개막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출격…대회 5연패 소렌스탐 유일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기록 깨기 위해 최대한 독하게 하겠다"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6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원주 성문안(파72·6494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박민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올해 대회에서도 박민지가 우승하면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단일 대회 5연패를 달성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속 미즈노 클래식 왕좌를 지킨 사례가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경우 타이거 우즈(미국)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베이힐 인비테이셔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뷰익 인비테이셔널을 4연패 했다.

KLPGA의 경우 구옥희, 박세리, 강수연, 김해림이 단일 대회 3연패를 달성한 바 있고, 지난해 박민지가 이 대회에서 사상 첫 4연패 주인공이 됐다.

박민지는 대회를 앞두고 KLPGA 투어를 통해 "단일 대회 5연패 도전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라며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즐겁게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독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민지가 처음 우승한 2021년에는 이 대회가 경기도 파주시 서서울CC에서 대회가 열렸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개최됐다.

박민지는 "바뀐 코스에 대해 많이 고민하기보다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고 내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겠다"며 "성문안은 코스 자체에 굴곡이 많고, 페어웨이가 좁으며 그린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E1 채리티오픈이 성문안에서 열렸는데 그때 컷 탈락을 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언 샷과 퍼트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대회 시작 전까지 아이언 샷과 퍼트를 날카롭게 가다듬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박민지가 우승하면 지난해 이 대회 이후 1년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투어 통산 20승도 채운다.

시즌 4승을 노리는 이예원과 지난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정윤지 등도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또 상금 순위 10위 이내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등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2023년 이 코스에서 열린 E1 채리티오픈에서는 방신실이 우승했다.

지난주 미국 위스콘신주 에린에서 열린 제80회 US여자오픈에 출전했던 노승희, 마다솜, 황유민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인 오수민과 최정원, 홍수민이 프로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지난해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민지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진영·윤이나, LPGA 숍라이트 클래식 출격

6일 개막…세계랭킹 1위 코다·US여자오픈 우승 스타르크도 출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을 마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54홀 대회' 숍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으로 이어진다.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뷰 베이 코스(파71·6263야드)에서 열리는 숍라이트 클래식은 LPGA 투어에선 드물게 사흘간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는 대회다.

LPGA 투어 정규 대회 중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건 이 대회와 9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뿐이다.

상금도 LPGA 투어 대회 중 제일 적은 편인 데다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 직후 열리지만, 올해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 2위 지노 티띠꾼(태국)이 모두 출전해 무게감이 달라졌다.

US여자오픈에서 시즌 두 번째 준우승을 거둔 코다는 올해 첫 우승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CME 글로브 포인트 1위(1478.45점)에 올라 있으나 US여자오픈에선 시즌 첫 컷 탈락했던 티띠꾼은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US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통산 2승이자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린 마야 스타르크(스웨덴)는 내친김에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한다.

'메이저 2연승'은 불발됐지만, US여자오픈에서도 공동 4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리며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82점)를 달리는 세계랭킹 10위 사이고 마오(일본)도 우승 후보로 꼽을 만하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마지막 날 무려 11타를 줄여 기적 같은 역전극으로 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린네아 스트룀(스웨덴)은 타이틀 방어를 꿈꾼다.

한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1999년 박세리, 2006년 이선화, 2017년 김인경에 이은 대회 통산 4번째 우승 도전에 나선다.

윤이나

US여자오픈에서 나란히 공동 14위로 선전한 고진영과 윤이나에게 시선이 쏠린다.

고진영은 4월 JM 이글 LA 챔피언십(공동 7위), 셰브론 챔피언십(공동 6위)에 이어 US여자오픈까지 자신이 출전한 3개 대회 연속 상위권 성적을 냈다.

고진영의 LPGA 투어 대회 우승은 2023년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이 마지막으로, 어느덧 2년 넘게 흘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시즌 큰 주목을 받으며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섰으나 만만치 않은 적응기를 보낸 윤이나는 US여자오픈에서 데뷔 후 최고 순위에 올라 자신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밖에 김세영, 임진희, 이소미, 박성현, 지은희, 주수빈, 강혜지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승씩 거둔 김아림(2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김효주(3월 포드 챔피언십), 유해란(5월 블랙 데저트 클래식)은 이번 대회엔 불참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들, 전국조정대회 금빛 레이스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지선(가운데)과 노효림(왼쪽 첫번째) 〈광주체고 제공〉

광주체고 김지선·강준우 등 금

광주·전남 선수들이 전국조정대회에서 선전했다.

지난 2일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끝난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광주체고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여자 18세 이하부 싱글스컬(1X)에서 김지선(광주체고 3년)이 2000m 질주를 9분06초52로 가장 먼저 마쳤다.

노효림(광주체고 1년)은 김지선의 뒤를 이어 9분17초05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블스컬(2X) 경기에서 호흡을 맞춘 김지선과 노효림은 7분37초29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남자 18세 이하부 경량급 싱글스컬(L1X)에서도 광주체고 강준우(3년)가 8분48초14로 1위에 등극했다.

강준우를 비롯한 광주체고 박성빈·박준호·강한경(이상 2년)은 쿼드러플스컬(4X)에서 6분28초52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더했다.

장성지역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졌다.

여대 및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L2X)에서는 장성군청 김미수(23)와 유지현(30)이 7분42초35로 가장 먼저 질주를 마쳤다.

남자 18세 이하부 무타페어(2-) 경기에서는 장성하이텍고 임서준(1년)과 임서우(1년)가 8분22초08로 1위 부산체고(7분14초1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다인 기자 kdi@

전남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사업 선정

9억9200만원 국비 확보

전남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체육 경쟁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

문체부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 공모에서 전남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사업에 선정돼 9억9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창단 지원과 운영 지원 분야로 나뉜다.

창단 지원을 통해총 2개 대학 2종목에서 3억9400여만원을, 운영지원에서는 6개 단체 18개 팀이 총 5억97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창단 지원 분야에서는 목포대 육상팀과 동신대 태권도팀이 창단과 동시에 3년간 각각 2억5500만원, 1억3997만원을 지원받는다.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전남도청(펜싱, 소프트테니스, 근대5종, 카누, 우슈, 스쿼시)이 9725만원, 목포시(육상, 하키)가 1억원, 여수시(요트, 유도, 육상)가 1억 3000만원, 순천시(소프트테니스, 양궁, 유도)가 1억 1500만원, 광양시(육상, 볼링)가 7000만원, 한국전력(럭비, 육상)이 850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김다인 기자 kdi@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6월 07일(토) 16:30, 17:30 / 남구 푸른길 공원
-06월 14일(토) 16:30, 17:30 / 양산호수 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